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AΩ 직장인

VOLUME 302 | SEPTEMBER 2022



金大建
안드레아
神父

2022.09.01 발간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2년 9월호 / 통권 302호

발행일 2022년 9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2©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302 | SEPTEMBER 2022

렌즈를 통해 보는 세상	4
함께 읽는 성경	6 사랑의 결실, 혼인
전례와 생활	12 미사 바로 알기 (10) - 성체를 받아 모심 16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News & Views	19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교회의 가르침	20 우주적 형제애 24 방 프란치스코와 박취득 라우렌시오 복자
신앙과 삶	28 '올로'(YOLO) 혹은 '카르페디엠'(Carpe diem)
듣다 읽다 보다	30 고전 음악을 듣다 36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42 정석의 이 도시(1) 우주피스 공화국 48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52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THE COVER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초상

그린이: 정도운 엘리야(<http://artist-jdw.com>)



무덥고 습한 여름의 도시에서 마주한 일상
/
윤정민 마틸다

참 좋으신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은총이 「가톨릭 직장인」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달(9월호)을 끝으로 당분간 편집장의 글을 쉬려고 합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주제로 쓸 것인가로 고민하던 중, 일간지의 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집중호우와 불볕더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올해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다가옵니다. 역사상 위기가 아닐 때는 없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한결 급박해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불안으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고,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서민들의 삶의 토대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욕망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선망과 원망이 그 틈을 파고 들어 세력을 과시하고, 거리 곳곳을 차지한 냉소와 적대감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영토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보다 더 급박한 것이, 기후 위기입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징조는 오래전부터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물끄러미 그런 현실을 바라볼 뿐, 그제 자기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 무관심의 이면에는 인류는 그간 수없이 많은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그 상황을 극복해왔다는 이상한 낙관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에 기댄 무관심이 우리 모두의 고향인 지구를 아주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큰비가 내리고, 물살이 거세지고, 제방이 터질 위험이 닥쳐오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 제방의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문을 닫아걸고 앉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무런 위험도 내게 닥칠 수 없다고 장담해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후가 붕괴되면 아무도 무고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국민일보 칼럼, ‘김기석 목사의 빛을 따라’, 2022년 8월 3일)

올여름 110년 만의 집중호우로 도로와 산이 무너지고, 집과 자동차가 잠기고,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후 위기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생태 위기에 응답하십시오.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을 돌보십시오. 이는 좋으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톨릭 직장인」 애독자 여러분도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살고 있는지 성찰해보며, 9월 순교자 성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민 마틸다

서울대학교 직장사목팀 본부장

사랑의 결실, 혼인

허영엽 마티아 신부_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매주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필사해봅시다.

1. 남녀 결합으로써 결혼(結婚)이란 무엇인가?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7,1-16까지
읽어보세요

혼인(婚姻)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식이며 계약이다. 사회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에 동거나 연인 관계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인간 사회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예로부터 매우 중요시되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족과 가정을 형성하며 종족 보존의 중요한 기능도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결혼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를 한다. 물론 그 형태는 각 사회의 문화와 종교적이고 민족적 요소에 따라 다르다.

과거에는 혼인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교제와 의사에 따라 결혼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결혼 제도는 인간이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면서 생긴 제도다. 고대의 결혼은 자식을 낳아 번식 그 자체를 위한 보조 제도로도 보인다. 남자는 경제적으로 여자와 자손을 부양하고, 여자는 주로 집안에서 물자를 관리하고 자손들을 돌보는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 결혼율이 급감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과 20대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을 생각해볼 때, 당분간은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출산과 결혼이 감소할 것이라 우려한다.

2. 성경에 나타나는 결혼의 목적

⋮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세요

옛 교부들은 남녀가 결혼하는 목적을 창세기 1장에 근거하여 남녀의 결합이 자녀 출산이라는 관점에서 명백히 정의한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150?~215)는 자연 출산이 혼인의 주요 목적이며 부부 상조는 제2차적인 목적이라 하였다. 오리제네스(183?~245)는 부부 행위는 자녀 출산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하느님은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혼인을 제정하셨는데, 이제는 인류 번식이 충분히 이루어졌기에 정욕을 치료하는 것이 혼인의 주요 목적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창세기 2장에서는 남녀의 성 본능과 결혼문제가 개인 자신의 행복과 개인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창세 2,18-24). 예언자들의 설교는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계약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혼인의 상징을 택함으로써 부부애를 간접적으로 찬양한다(호세 1-3장, 예레 2,2). 신약에서는 자녀 출산이 함축적으로 결혼의 주요한 목적으로 나타난다. 혼인에 관한 교부들의 주된 관심사의 하

나는 혼인의 신성함을 옹호하는 데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 받는 이들은 더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루카 20,34-36)

3.
결혼에 대한 교황의 가르침
:
마태오복음 19장을
읽어보세요

교황 비오 11세는 1930년 12월 31일자의 회칙 <정결한 혼인> (Casti connubii)에서 자녀 출산과 교육이 혼인의 제1차적 목적이고, 부부애와 상호 부조 등은 제1차적 목적에 종속되는 제2차적 목적임을 강조했다. 바오로 6세는 1968년 7월 25일자의 회칙 <인간의 생명>에서 혼인의 목적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만 다룬다. “부부는 그들에게 독립적이며 고유한 자신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 자기를 완성하려는 인격의 교류를 이루며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교육을 위하여 하느님과 협조하는 것이다.”(제8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천상 원천에서 솟아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모델삼아 구성된 이 다각적 사랑에 풍부한 당신 축복을 내리셨다. 일찍이 하느님께서 사랑과 충실의 계약으로써 당신 백성을 도와 주셨듯이, 지금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교회의 정배께서 혼인성사로써 신자 부부를 도우려 오신다. 그들과 함께 계시며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부부도 역시 서로의 애정과 변치 않는 충실로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신다. 진정한 부부애는 하느님의 사랑에 흡수되어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과 교회의 구원활동으로 지배되고 풍요해진다. 이러한 제2차 바

티칸 공의회에서 결혼에 대한 목적을 사목헌장 48~50항에 잘 나타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혼인제도와 부부애는 본연의 성격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로써 부부애는 절정에 달하고 흡사 월계관을 받아 쓰는 셈이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혼인계약으로써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마태 19,6). 인격과 행위의 깊은 결합으로써 서로 도와주고 서로 봉사하며 이로써 자신들의 결합의 의의를 체험하며 날로 더욱 깊게 한다. 이 깊은 일치는 인격과 인격의 상호 교환이므로, 자녀의 행복이 요구하듯이, 부부의 완전한 신의와 그 일치의 불가해소성을 강요한다.”

4.
성사로써의 혼인
:
마태오복음 10장을
읽어보세요

혼인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의 존속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자 사이의 혼인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사의 품위가 주어졌다. 부부는 효과적으로 하느님께로 인도되고 부모의 송고한 임무수행에 있어서 도움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 부부는 그 신분의 의무와 존엄성을 위하여 특수한 성사로 견고해지는 것이니, 말하자면 축성되는 것이다. 이 성사의 힘으로 신자 부부는 혼인과 가정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의 전 생애를 신마에 삼덕으로 채워 주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여 날로 더욱 자기 완성과 상호 성화에 전진함으로써 공동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사목헌장 제48장).

가톨릭의 결혼은 본질적 특성이 단일성(單一性)과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이다. 이 특성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결혼에 있어서는 성사(聖事)에 의하여 특별히 강화된다. 결혼

의 단일성이란 다른 사람의 결합을 배제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을 말한다. 불가해소성은 혼인은 원래 나눌 수 없는 공동체로 제정되었다. 모세가 유다인들에게 이혼장을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던 것(신명 24,1-3)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의 원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혼인의 불가해소를 선언하셨다(마태 10,10-12).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의 인연을 인간 마음대로 풀 수 없음을 가르치셨다(마르 10,9-12). 부부간의 사랑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유하셨으며(에페 5,21-29), 배우자를 위한 사랑으로 자신을 잊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혼인의 목적은 서로 갈릴 수 없는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를 출산하여 주님의 인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부부의 합심한 사랑으로 자녀를 잘 교육하며 양육하는 데에 있다. 또한 부부가 서로 도와 창조주의 목적에 맞도록 자신들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다(에페 5,22-23).

부부는 혼인 성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성가정(聖家庭)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혼인은 그리스도교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사로 여겨졌다. 혼인에는 신성하고 풀리지 않는 의무가 있다. 혼인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일치라는 종교적 상징이 되었다. ☪

CORNERSTONE



The Greek letters alpha and omega surround the halo of Jesus in the catacombs of Rome from the 4th century

Alpha and Omega (ΑΩ,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묵시 22,13)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Rv 22,13)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로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만물의 시작과 끝으로 상징화하는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뜻한다. 하느님(성부)의 말씀은 묵시록 1,8과 21,6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묵시록 22,13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묵시록 22,13에서 사용된 말은 강생하신 성자의 신성(神性)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약성서에서 하느님(성부)에 관하여 계시된 바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하느님의 영원성이 강조되어 있는 이사야서의 구절들(41,4; 44,6; 48,12)에 암시되어 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보다 더 포괄적이다. 알파벳의 두 글자가 모든 글자들을 내포하듯이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서, 모든 차원과 국면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심을 시사하는 것이다. 로마서 11,36의 의미도 이와 비슷하다. 요한이 알파와 오메가를 사용한 것은 유대적인 배경에서 비롯한다. 몇몇 랍비의 저작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와 끝자인 알렙-타오를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던 것이다. 교회를 장식할 때 십자가와 함께 알파와 오메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 가톨릭대사전, 전례사전)

미사 바로 알기 (10) - 성체를 받아 모심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제대에서 사제가 성체를 쪼개고, 그 작은 조각을 성혈에 섞는 예식을 수행하는 동안 신자들은 다 함께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합니다. 이 공동체의 노래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였으며 다시 들어 높여지신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자비와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미의 노래입니다.



파스카의 희생 제물인 하느님의 어린양

전례 안에서 노래하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명칭은 신약성경, 특히 묵시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묵시록은 천사들이 “살해된 어린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 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묵시 5,12-13)하고 외치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할 때, 우리는 승리하신 어린양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무리와 하나가 됩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되신 새로운 파스카 어린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1코린 5,7)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슬초 가지에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꽃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는 장면(요한 19,29)은 구약의 이집트 탈출 때에 우슬초 묶음으로 파스카 제물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게 한 모세의 지시(탈출 12,22)를 떠올리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릴 때 군인들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은 장면(요한 19,33)은 파스카 제물의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된다는 사실(탈출 12,46)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린양으로서 그분의 죽음이 파스카의 희생 제사와 연관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영성체로의 초대와 응답

신자들이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하고 나면 사제는 쪼개진 성체를 들어 올리며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문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기쁨의 선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부릅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 36) 이사야 예언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이사 53,7) 보이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는데, 요한은 그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제가 성체를 들어 보이며 신자들을 성찬에 초대하면 신자들은 겸손하게 응답의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이 기도문은 카파르나움에서 자신의 하인을 낮게 해달라고 청한 백인대장의 겸손한 기도(마태 8,8)에서 기인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만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멀리 떨어진 이들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음을 믿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실 준비를 모두 마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됨

사제나 성체 분배자가 성체를 들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이는 성체를 받아 모실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는 행위입니다.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나는 이 빵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세상 안에서 그 지체로 살기를 원합니까?”라는 질문에 “네, 그분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하고 우리의 다짐과 결심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영성체에 참여하는 각자는 그리스도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분과 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동시에 그것은 성체를 모시는 이들이 함께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영성체를 통해 머리인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각 지체가 하나의 신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체는 개인 신심의 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찬미이고 공동의 나눔의식입니다.

성체를 모시는 방법

전례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성체하는 방법을 숙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체를 손으로 받아 모시는 관습은 이미 초대 교회부터 여러 세기를 두고 있어 온 관습입니다. 그러던 것이 9세기 이후 사제들이 병자들에게 직접 성체를 영해 주도록 하면서 입으로 받는 형태가 점차 일반화됩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성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인식은 점차 흐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참된 인간성을 강조하기보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현존을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체 신심은 과도한 존경심으로 신자들이 부당함을 느껴 영성체를 꺼리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고, 결국 평신도는 성체를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관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는 입으로 받는 영성체와 함께 손으로 받는 영성체도 허용합니다.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관습을 되살린 것은 단순히 ‘손으로 하는 영성체’가 더 ‘옛것’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주신’ 본뜻에 부합하고 ‘사랑의 만찬’을 잘 표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침묵

영성체를 하고 자리로 돌아오면 자리에 앉아 침묵 중에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영성체 후 침묵의 시간은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소리가 울리게 하고, 하느님과 더 긴밀한 내적 결합을 촉진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 안에서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능동적 참여를 증진하도록, 백성의 환호, 응답, 시편 기도, 따름 노래, 성가와 함께 행동이나 동작과 자세를 중시하여야 한다. 또한 거룩한 침묵도 제 때에 지켜야 한다.”(「전례 헌장」 30항)

전례 헌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침묵은 전례 거행의 한 부분이며 우리가 전례 안에서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능동적 행위입니다. 침묵은 하느님 말씀을 듣게 하고 묵상과 기도로 그 말씀에 대답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사 거행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경우에도 사실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체를 모신 후 이러한 침묵의 시간에 주님과 일치를 이루며 더 깊게 더 열렬히 마음을 모아 감사의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예로니모

St. Jerome (축일: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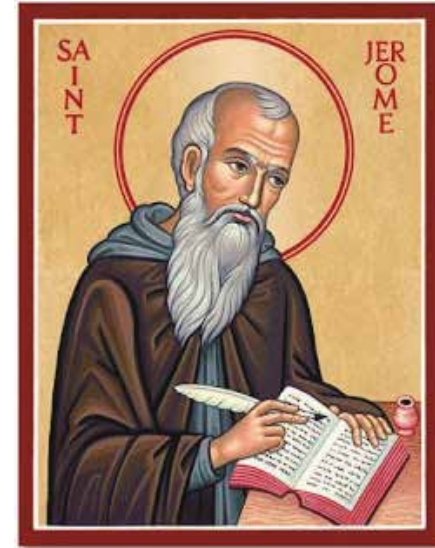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의사전달과 공유에 있을 것입니다. 이 전달과 공유라는 것이 바로 영어로 말하는 Communication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라틴어 동사인 Communicare는, ‘함께’라는 뜻을 주로 지니는 접두사 ‘con’, 그리고 ‘일, 직무’를 이야기하는 명사 ‘munus’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접미사 ‘~icare’는 동사화시키는 접미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 직무를 가지게 되다’라는 뜻에서 ‘Communicare’가 되고, 이것의 명사화가 바로 ‘Communicatio’가 됩니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지요.

함께 직무를 맡게 된다는 것은, 같은 배경을 이해하고, 같은 정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아주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상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지에 대한 여부가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동일한 언어사용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은 통하지만 뜻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등장할 수 있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이든, 종교적인 차원이든 관계없이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해 가능한 동일 언어사용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예로니모’ 성인이 가지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은 최초로 구약성경 히브리어와 신약성경 그리스어를, 그 당대의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한 대중적인 라틴어(Vulgata Latina)로 서기 382년에 번역을 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느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느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느낌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신 일등공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성 예로니모-

분 이름의 어원에 담겨진 뜻을 생각하면, 이것도 하느님께서 이미 ‘안배’하신 섭리가 아니겠는가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정식으로 라틴어로 표기하면 Hieronymus(히에로니무스)입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는 다시 그리스어 Ἱερώνυμος(히에로니모스 Hierónymos)에서 기원한 것이며, 이것은 다시 두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ἱερός(히에로스 hierós, sacred, 거룩한), 그리고 후자는 ὄνομα(오노마 ónoma, Name, Office, 이름, 직무)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을 이

루어 만든 단어가 바로 히에로니무스, 즉 예로니모입니다. 특정 유럽언어에서는 앞에 오는 이 ‘H’(에이취) 발음을 묵음으로 처리하는 언어들이 있으므로, 그런 언어들에서 발음하게 되었을 경우에 ‘예로니무스’로 발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니모라는 이름도 가능한 변형이 되겠고, 영어식 변형은 Jerome(제롬)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름의 어원적 의미는 바로 ‘거룩한 직무를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직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분께서 성경 말씀의 원활한 커뮤니

케이션에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셨고, 교회의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까지도 그분의 주석서와 해설은 아주 유용한 자산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께서는 진정한 거룩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함이란 구약에서는 ‘분리, 성별’의 차원을 이야기하며, 신약에서도 이런 개념의 맥락을 이어가면서 갱신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공생활, 수난과 부활이 이 지상세계와 깊이 연관되어서 일어났다는 점이고, 교회는 이것을 항상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룩함이란, ‘저 너머의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결국 나(개인)와 우리(공동체, 교회)에게로 다가온다’는 측면,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현실에서 그 어떠한 것도 빼앗아가지 아니 하되 오히려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면서 삶을 생동감 넘치게 변화시켜 준다’는 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매 순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 거룩한 통교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예로니모 성인은, 바로 자신의 이름과 동일한 인생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님의 섭리에 의한 안배라고 믿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나 수도명으로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예로니모 성인의 삶을 보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따라야 할 영성은 바로 ‘거룩한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성경의 문자적 전승 방식일 것이고,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일상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며 과연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지 항상 우리의 오감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거룩한 직무와 거룩한 이름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히에로니무스’ 예로니모 성인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톨릭직장인] 후원금 안내

-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지면에 광고 게재 가능)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가톨릭직장인] 모임교재, 편집팀 봉사자 모집

[가톨릭직장인] 월간지 발행을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편집팀: 월간지 기획 및 편집, 교정
- 모임교재: 월보 속 “신앙과 삶” 나눔 원고 기획
-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 gikjang@catholic.or.kr

제37회 대한민국 가톨릭 공직가족 피정대회

- 일시: 2022. 9.24.(토) 10:00~17:00
- 장소: 효창운동장(도보성지순례 포함)
- 대상: 전국 가톨릭 공무원 및 공사공단 직원과 가족(퇴직자 포함)
- 주요내용: 도보성지순례 및 영성특강, 문화공연 및 장엄미사(정순택 대주교 집전)
- 문의: 기관별 교우회 총무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남자 단원모집

-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신자
- 모집인원: 테너, 베이스 00명
- 연습/미사: 매주 (금) 19:30./둘째 (금) 20:00, 명동성당 교스트홀 2층 소성당
- 문의: 단장: 010-5203-4355, 부단장: 010-5104-5644

2022년 예비자교리 현황

2022년 직장공동체 예비자 교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비자교리를 하시는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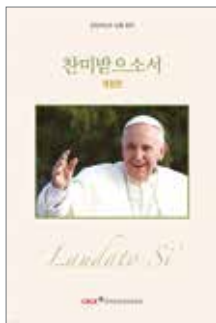
- 교리기간: 4월 18일-11월 11일, 총 30주, EDWITH를 이용한 비대면 교리
- 참고피정: 11월 12일(토) 09시 30분~16시, 영성센터 B201
- 세례성사: 11월 20일(주일) 13시 30분, 명동대성당
- 문의전화: 02-727-2078

교우회명	국회	서대문구청	시립은평병원	제주항공	SC은행	총
인원	2	1	3	2	2	10명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우주적 형제애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오랜만에 도시를 떠나 고요한 곳에서 피정을 하며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뒤편 아래서 쑥쑥 자라고 있는 벼, 키 큰 수풀 사이로 고개 내민 들꽃, 푸른 숲 오솔길을 뛰어가는 다람쥐, 어두운 밤 어디선가 구슬피 우는 소쩍새까지... 다시 마주하니 반갑고 정답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보니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 사는 다른 식구들을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풀벌레 소리, 맑은 시냇물, 밤하늘의 별 대신에 자동차 소음, 콘크리트, 화려한 네온사인에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자연에 대한 감수성은 무디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넓어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는 멀어져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하나의 관계망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91항). 모든 피조물은 한 분이신 창조주로부터 생겨났고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피조물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연대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과 바다, 새와 나무는 인간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네 인간도 “한 분이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로서” 다른 피조물과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89항). 하느님께서 “우리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주적 가족’처럼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89항). 이처럼 “하나의 관계망”(240항)으로 이루어진 하느님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주적 친교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모든 존재와 결합시켜 주신 유대를 깨닫고 “우주적 친교”(76항)에 마음을 열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과 친교를 맺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분의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도록 요청받는다 것입니다. 단순히 나와 가까운 몇몇 사람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 전체와 일치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보라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이루는 관계를 배제하고 하느님과 이루는 올바른 관계를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느님의 다른 피조물들과 깊은 친교를 이룰 때, “인간에 대한 온유, 연민, 배려의 마음”(91항)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따뜻한 애정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나에게 갇혀 있지 않고 너에게 열린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친교의 폭을 넓힘으로써 좀 더 충만하게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느님, 타인,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어 살면서 관계를 맺을수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

며 거룩해집니다”(240항).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러한 우주적 친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무리 작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책임져야 할 어떤 것’이라고 보기에 앞서 ‘자신과 연결된 형제와 자매’라고 본 것이지요. 이처럼 “우주적 친교에 마음을 열면, 이러한 형제애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제외되지 않습니다”(92항). 물론 성인께서 보여주신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숭고한 형제애”(221항)는 개인적 감상이나 순진한 낭만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이 창조세계는 사랑의 유대로 자신과 결합된 친교의 공동체였습니다.

지구와 친구되기

우주적 친교의 관점으로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이 단순히 우리의 이익이나 여가를 위한 ‘객체’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생물종이 자기 목소리를 가진 주체로서 다른 주체와 관계 맺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세계는 토마스 베리의 말처럼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친교”로 보이겠지요. 이처럼 다른 존재와의 관계가 ‘주체’와 ‘주체’로 함께 할 때, 곧 ‘나와 그것(I-It)’의 관계를 넘어 ‘나와 너(I-Thou)’의 관계로 마주할 때, 우주적 형제애도 활짝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다른 피조물이 우리에게 3인칭 ‘그것’이 아닌 2인칭 ‘당신’이 되어간다면,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구의 ‘관리자’가 아닌 다른 피조물의 ‘친구’로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를 지키자(Save the Earth)’는 부담감은 잠시 내려놓고, ‘지구와 친구되기(Befriending the Earth)’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우주적 형제애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연을 단순히 이용이나 관리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상대’로 삼아보자고 제안하고 싶

습니다.

생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지구 온난화와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이고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실천적 노력들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지구 공동체의 다른 일원들을 좀 더 가까이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 역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만물이 “공동된 기원을 지니고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미래를 함께한다는 인식”(202항)을 바탕으로 다른 피조물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생태적 실천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 사항에 그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돌보는 자발적 행동으로서 그 진정성이 묻어날 것입니다.

지구를 돌보려는 노력은 효율적인 ‘관리’에 앞서 친밀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의 운명은 결국 우리와 지구 공동체가 얼마나 가까워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쉽지만, 자신이 아끼고 좋아하는 존재는 돌보고 지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꽃향기를 맡는 일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한 상황이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든 답을 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담긴 생태적 지혜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창조 질서 보전과 회복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경 이야기가 인간과 세상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65항) 귀 기울이며, 우리네 생태적 삶이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로 승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방 프란치스코와 박취득 라우렌시오 복자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124위 복자 가운데 1801년 박해 이전 순교자는 모두 15위입니다. 그 중 1799년에 순교한 이들은 방 프란치스코, 박취득 라우렌시오, 원시보 야고보, 정산필 베드로인데, 이들은 서로 자주 만나 천주교 교리를 연구하고 실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가운데 충청도 홍주에서 순교한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방 프란치스코는 면천(沔川) 출신으로 비장(裨將)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어서, ‘방 비장’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비장’은 조선시대에 감사나 절도사 등, 지방관을 수행하던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내포에 전해진 천주교 가르침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순교하기를 열망하였고 합니다. 불행하게 그의 입교과정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고, 홍주 관아에서 벌어진 그의 마지막 증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신문과 형벌을 참아내던 3명의

교우는 관례에 따라 사형수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으나, 방 프란치스코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이토록 좋은 음식을 가져다 주니 어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리요?”하면서, 일종의 최후 진술을 하였습니다.

“창조와 보존하심은 하느님의 은혜이지만, 관장으로부터 이렇게 관대한 대우를 받는 것 또한 섭리의 은혜가 아니겠소. 왜 당신들은 슬퍼하고 낙심하는 거요, 이는 사탄의 유혹이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좋은 순간을 놓치게 된다면, 이제부터 어떤 기회를 기다려야 하겠소.”

방 프란치스코는 본인 스스로 지방관을 수행하는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천주교 신자들의 기도문에 따라 칠기구(七祈求)의 세 번째 내용인 임금과 수령을 위해 매주 기도했습니다. 이는 동시에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홍주 출신의 **박취득 라우렌시오**는 천주교 교우들이 붙잡혀 있는 옥에 가서 항의를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가혹하게 매질하고 여러 달째 옥에 가두어 두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도 천주교 신자임이 발각되자, 홍주 관아에 체포되면서 수개월 동안 심문이 이어졌습니다.

첫째 신문 과정에서 박취득은 자신이 배우고 실천하는 십계를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 4계는 부모와 어른 임금과 관장을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 부모는 돌아가신 뒤에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잡수려 오지 못하시므로 그분들에게 음식은 드리지 않습니다. [...] 제 6계는 일체의 외설을 금하고, 제 9계는 남의 아내를 원하는 것조차 금합니다. 얼마 안 되는 제 재산은 헐벗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쓰고 있으니, 그것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신문 과정에서는 천주교 서적과 성물을 불태우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다리에 매를 맞았습니다. 박취득이 옥에서도 무거운 칼을 쓰고 있었으므로, 교우들은 돈을 주며 옥에서만큼은 칼을 벗도록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신문에서 박취득은 생명의 참된 주인 천주에 대해 다시 증언하였습니다. “임금님은 육체의 임자가 될 수는 있으십니다. 그러나 천주만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뒤의 상과 벌을 정해 놓으셨고, 아무도 그것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죽어야 한다면 그것이 제게 대수입니까? 인생이란 사라져 버리는 이슬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인생

은 나그네 길ियो,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7개월 후에 새로운 관장이 부임하자, 다시 네 번째 공식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박취득은 당시 순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응답으로 증언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 중에 가장 큰 것이니, 살기를 원하고 죽음을 무서워함은 모든 이에게 공통된 감정입니다. 그러나 천주는 사람들의 첫째 아버지이시고 만물의 최고 주재자이니, 저는 죽을지라도 그분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관장은 보통 신자들의 가족들을 위협하면서 배교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네가 처형된 다음에는 네 어머니도 너 때문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 “제가 죽은 다음에는 제 어머니가 사또의 수중에 있겠지만, 어머니도 천주에게서 창조되었으니 천주께서 그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신문에서 라우렌시오는 천당과 지옥에 관한 교리를 분명하게 증언하였습니다. “... 세상이 마칠 때 모든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는 양반과 서민, 임금과 백성의 구별이 없이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주 성자 앞에 모일 것이고, 그분은 과거와 당시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주 예수와 그

의 성인들과 함께 천당에 올라가서, ... 악한 사람들은 발 밑의 땅이 꺼지며 지옥으로 떨어져, ...”

박취득 라우렌시오의 증언들을 모두 모아 보면, 1801년 박해 이전의 신자들의 교리 수준과 신앙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십계명의 자세한 풀이와 실천을 알고 있었고, 창조론 · 원죄론 · 구원론 및 영혼불멸 · 천당지옥설 등의 기본 교리들을 정확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신문에서 천주교인을 고발하라는 관장의 말에 ‘두목도 없고, 교우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라우렌시오는 여러 고문을 받으면서도 상처 입은 몸에 옷을 벗겨 진흙 속에 버려두고 추위를 겪게하는 형벌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일부분을 발췌해봅니다. “불효 자식 라우렌시오는 옥중에서 어머니께 제 심정을 알려드립니다. ... 어머니 제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제 영혼을 구해 주시도록 천주께 기구하여 주십시오... 봄과 가을은 흐르는 물과 같이 지나가고, 세월은 부시로 치는 돌에서 튀어나오는 불뚝과 같아서 길지 못합니다. 특히 조심하셔서 천주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제가 옥에 갇힌 지 두 달쯤 되어서 저는 어떻게 해야 천주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 궁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잠결에,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가 열핏 보였습니다. 이 발현은 약간 흐리기는 하였지만 결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1799년 2월 25일에 쓴 편지에서 또 다시 “저는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이 천주의 명령을 따르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니 불안합니다. 천주의 명을 잘 따르시면 저 자신도 기뻐하겠습니다.” 이처럼 박취득 라우렌시오는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효를 책망하면서도 자신의 가족들이 신앙을 저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십자가를 따를 것이라는 일종의 환시가 나타났습니다.

교회 기록에 의하면 그는 18개월의 감옥 생활 중에서 1천 4백 대 이상을 맞았고, 마지막에는 8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줄 알고 감옥 밖으로 내

던져졌는데, 신자들이 음식을 먹여 살려주었습니다. 교우들은 그토록 기운이 없던 박취득이 홀로 일어나 자신의 칼을 벗고 감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굶어도, 맞아도 죽지 않는 박취득을 옥사장인들이 목을 매어 죽게 하였습니다. 1799년 2월 29일(양력 4월 3일) 오전 11시 경, 약 30세의 박취득은 교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서문에서 말했듯이 박 라우렌시오는 원시보야고보, 정산필 베드로, 방 프란치스코와 절친한 사이였고, 그들은 순교하기 위하여 서로를 밀고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밀고가 아니라, 거의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고을에서 차례로 고발당하여 체포되었고, 그들의 약속대로 모두 신앙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피의 순교로 증거하였습니다. ☹

묵상

방 프란치스코처럼 한끼의 식사를 마치 최후의 만찬처럼 받아들이고 감사드린 적이 있는지요? 박취득 라우렌시오처럼 ‘인생은 나그네길이며,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라고 묵상해 본 적이 있는지요? 불굴의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복자 박 라우렌시오를 기억합니다.

‘올로’(YOLO) 혹은 ‘카르페디엠’(Carpe diem)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김 다니엘은 얼마 전 고교 동창 중의 한 명이 아내와 함께 포르쉐 스포츠카를 타고 전국 일주 여행을 마친 후 병원에 입원하더니 열흘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내용인즉 여행 떠나기 전에 폐암 말기로 2개월 정도 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고 평소의 소원대로 아내와 함께 포르쉐를 타고 (일종의) 이별 여행을 잘 마친 후 임종했다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옛 친구의 빈소에서 만난 동창생들은 먼저 간 동창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제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니 지금이라도 버킷리스트 모임을 만들어 자주 얼굴 보며 즐겁게 살자.’는 취지로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었다.

그날 저녁 빈소에서 마신 몇 잔의 술로 적당히 취기가 올라 귀가하는 전철 안에서 김 다니엘은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제 막 60대에 접어든 김 다니

엘은 아직 대학생인 늦둥이 막내가 있어 최근에 어렵게 얻은 두 번째 직장에 잘 적응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처지라 막상 친구들의 그런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래, 너희들은 팔자가 좋아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각자 앞가림들을 잘 하고 있으니 좋겠다...’ 싶으면서도 자연스레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회자되고 있는 소위 ‘올로’와 ‘카르페디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은 왠지 모를 것이다.

Question

‘올로’나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마태오복음 5장 3절부터 12절 ‘참행복’을 읽어주십시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현재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의 “나의 때”와 “나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참행복’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핵심이다. 행복 선언은 바로 아브라함 이후 선택된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하신 것이다. 이 약속들은 더 이상 지상에서 누리는 기쁨에 그치지 않고 하늘 나라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완성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16항]

참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묘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한다. 참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소명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태도를 밝혀 준다. 참행복은 고난 가운데에서 희망을 복돋아 주는 역설적인 약속들이다. 참행복은 희미하긴 하지만 이미 제자들이 받은 축복과 약속들을 선포하며, 그것은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삶에서 실현되기 시작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17항]

인류 역사의 무대인 이 세계에는 인간의 노력과 실패와 승리가 새겨져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가 창조주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보존된다고 믿는다. 죄의 노예 상태에 떨어졌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악의 권세를 쳐부수시고 해방시키신 이 세계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변혁

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제2항]

<참조 글>

죽음에 대한 고대 로마인들에게는 두 개의 명언이 있습니다.

Carpe Diem(카르페 디엠), Memento Mori(메멘토 모리) 현재에 충실하라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라.

먼저 우리말로 ‘현재를 잡아라’라고 번역되는 카르페 디엠은 현재 인생을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멘토 모리는 ‘당신이 죽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번역됩니다. 이는 태어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고 마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또 평범한 사람이라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을 피해 가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어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가야 합니다.

[출처: spacefactory 공간제작소 ‘<https://blog.naver.com/psh72928/222795940560>’]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도’와 교향곡 2번 ‘부활’ - 왜 말러인가? (1)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음악가 구스타프 말러(1860-1911)는 이른바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 빈의 ‘세기말’에 활약한 천재들 중의 하나였다. 음악사적으로는 후기낭만주의와 현대음악의 경계점에 서 있으니 우리가 흔히 듣는 클래식 음악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음악사적으로는 뒤로 갈수록 음악 그 자체는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만일 모차르트에 익숙하다면 베토벤조차도 시끄럽게 들릴 수 있다. 쇤베르크 이후 조성이 파괴된 무조음악을 필두로 등장한 현대음악은 시끄럽게 들릴 만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만일 말러도 시끄럽게 들린다면,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음악을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왜 ‘편안하지 않은 음악’을 들어야 할까? 이 말은 ‘왜 말러인가?’의 질문이기도 하다. 말러의 음악도 버지니아 울프나 허먼 멜빌처럼 의식의 흐름이나 철학적 상징이 가득한 문학의 고전과도 같이, 힘들게 노력해서 이해하고 나면 그 어떤 음악도 줄 수 없는 무한한 감동을 준다. 히틀러가 그토록 유다인의 퇴폐 음악

으로 말러를 지워버리려고 애썼지만 1960년대 전 세계는 말러 붐이 일어났고, 뒤늦었지만 우리나라에도 부천 필의 말러 전국 사이클을 계기로 붐이 일어났다. 모차르트와 바흐조차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도 갑자기 음악사의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끝자락의 말러를 좋아하는 기적도 일어났다. 말러의 직계라고 자처하는 - 스승 부르노 발터가 말러의 애제자 - 레너드 번스타인이 1968년 6월 8일 로버트 케네디의 장례식에서 말러의 교향곡 5번의 4악장 ‘아다지에도’를 연주하여 대중에게 깊은 각인을 남긴 것과 함께 말러 붐에 일조하였다. 1917년 루치아노 비스콘티가 토마스만의 단편소설을 영화화한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그 ‘아다지에도’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더더욱 유명해졌다. 우리나라 음악영재를 후원했던 아시아나 박성용 회장의 장례식에서도 유언에 따라 아다지에도가 연주되었었다. 최근 박찬욱의 칸영화제 수상작 ‘헤어질 결심’에도 여러번 등장하였다. ‘왜 말러인가?’ - 노먼 레브레히트의 책이름이기도 하



다 - 는 우리 현대인에게 화두가 되었다.

하프를 배경으로 알 듯 모를 듯 이어지는 아름다운 현악 선율의 향연, 말러의 ‘아다지에도’를 그 선율 너머로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알아야 한다. ‘아다지에도’의 음악적 구조는 가장 단순한 3부(A-B-A)이다. A부분은 말러의 ‘뤼케르트 시에 의한 가곡’ 중 한 곡인 ‘나는 세상에 잊혀지고(Ich bin abhand der Welt gekommen)’에서 유래하였다. 말러는 교향곡 5번의 작곡을 1901년 여름에 시작하였는데, 피아노 5단으로 스케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19세 연하인 알마 쇤데러와 사랑에 빠져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말러가 알마에게 연애 중에 선물로 ‘아다지에도’를 직접 피아노로 연주하여 주었기에, 후에 멘델베르크 - 당시 말러의 추종자로 암스텔담 컨서트허바우의 지휘자 - 는 말러의 연애편지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사랑의 노래이지 죽음과는 상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월가의 성공한 금융인이지만 말러에 푹 빠져 평생 말러자료를 미친듯이 수집했던 길버트 카플란 - 급기야는 사비로 유명 관현악단과 교향곡 2번 ‘부활’을 지휘하여 CD까지 녹음한 인물 - 은 아다지에도를 장례식 음악으로 쓰는 것을 반대하고 번스타인의 12분 연주보다 훨씬 빨리 연주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뿌리인 가곡 ‘나는 세상에 잊혀지고’의 가사 - 뤼케르트의 시 - 를 보면, ‘나는 비록 세상에서 잊혀졌지만 그래도 나의 노래와 사랑 속에 산다’고 하고 있다. 가사 중 특히 ‘노래와 사랑’ 부분에서 나오는 선율이 A부분의 기초를 이룬다. 그 가사는 세상에 잊혀질만큼 ‘고독한’ 삶이고, 이때 화자인 ‘내’가 잊혀졌다는 것이 죽은 이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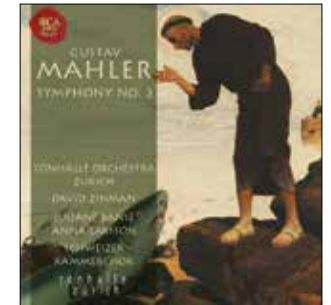


Mahler: Symphony No. 5
Wiener Philharmoniker, Leonard Bernstein
Friedrich Pfeiffer (horn)

Release Date: 19th Feb 2007
Catalogue No: 4776334
Label: DG
Series: Grand Prix
Length: 74 minutes
Recorded: 1987-09-08
Recording Venue: Alte Oper, Frankfurt/M.

이야기하는 것인지 애매하기도 하다. 이렇게 시의 가사를 분석해보면 ‘아다지에도’가 장례식에 어울리지 않는 ‘사랑의 편지’만으로 단정지를 일은 아니다. B부분에 이르면 ‘사랑’에도 ‘불안’이 섞여있는 듯 애매모호한 분위기도 준다, 이러한 ‘모호함’은 사실상 말러 모든 음악에 깃들여 있다. 그러한 모호함을 해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가 된 가곡의 가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말러는 기본적으로 ‘가곡 작곡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짧은 동기(모티브)를 발전시키는 베토벤류의 음악과 달리, 말러는 노래(멜로디)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말러의 교향곡 1번에서 4번까지는 자신의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가곡집에서 직접 발췌하여 ‘뿔피리 교향곡’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한다. 교향곡인 5번은 그 1악장에도 뿔피리 가곡집의 ‘소년 고수’와 뤼케르트의 시에 의한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의 제1곡 (Nun will die Sonn' so hell aufgeh'n 태양

은 그렇게 밝게 떠오를거야)의 선율도 있다. 그렇다면 말러는 왜 그렇게나 가곡을 교향곡에 넣었을까? 베토벤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베토벤은 마지막 교향곡에서 자신이 의도했던 음악적 설명의 한계를 쉼의 시를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말러도 처음 교향곡 1번부터 거의 ‘교향시’-리스트는 문학작품의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교향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안하였다 - 라고 할 정도로 ‘장 파울’의 ‘거인(Titan)’이라는 문학작품을 음악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후 말러는 점차로 ‘교향곡에는 세계가 담겨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실현시켜 간다. 악기만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하다면 ‘소리 그 자체(sound)’를 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회초리를 모아 묶어서 채를 만들어 북의 가죽이 아닌 테두리를 친다든가 알프스 목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소방울’을 올리거나 심지어 큰 나무망



Mahler: Symphony No. 2 'Resurrection'
Juliane Banse (soprano), Anna Larsson (contralto)
Tonhalle Orchestra Zurich, Schweizer Kammerchor, David Zinman

Release Date: 23rd Aug 2010
Catalogue No: 88697513072
Label: RCA
Series: Zinman Mahler Symphonies
Length: 81 minutes

치로 내려치는 소리도 넣었다. 그래서 말러 교향곡을 ‘세계 교향곡(Welt-symphonie)’이라고까지 부른다. 이렇게 우리의 세상 삶을 교향곡에 온전히 넣어 표현하였기 때문에, 이야기꾼 말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서사의 대부 (Godfather of Epic)’가 되었다. 마치 호머의 오디세이를 읽듯이, 우리는 말러의 교향곡이 주는 서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말러가 고른 시는 워즈워스와 같은 낭만시가 아니다. 심지어 우리의 ‘각설이 타령’과 같은 민중에 구전되는 시-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가 그러하다-도 있어서 이 세상의 아이러니도 곧잘 들려준다. 이제 말러로 인하여 음악은(‘주어’) 더 이상 편안하게 우리를(‘객체’) 위로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주어가 되어 음악을 객체로서 우리네의 삶을 이해한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에 달했고 전문이 감돌던 세기말의 말러는 아이러니한 문명세계에 그 이면에 깃든 이중적 모호성을 음악화하여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었다. 삶 속에 죽음이 숨어 있고, 사랑 속에 슬픔이 깃들여 있는 음악을 보여주었다. 세기말의 문학과 예술은 이미 문명과 야만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였다. 의료복지의 혜택 속에서 마치 우리는 당연히 100세를 살고 그 이전에 죽으면 ‘사고’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익숙했던 죽음을 잊지 말라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가 지금의 우리에게도 잊혀진 것이다.

말러는 14명의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나 그 중 일찍이 8명의 형제자매를 잃으



Mahler: The Complete Symphonies

Arleen Augér (soprano - Symphony No. 2), Dame Janet Baker (mezzo - Symphony No. 2), Birgit Remmert (contralto - Symphony No. 3), Amanda Roocroft (soprano - Symphony No. 4), Christine Brewer (soprano), Soile Isokoski (soprano), Juliane Banse (mezzo-soprano), Birgit Remmert (mezzo-soprano), Jane Henschel...

Release Date: 18th Aug 2017

Catalogue No: 9029586917

Label: Warner Classics

Length: 12 hours 57 minutes

1988 Gramophone Awards /Winner - Engineering, Winner - Orchestral, Recording of the Year

2000 Grammy Awards 43rd /Best Orchestral Performance

2022 Building A Library /Recommended Recording

면서 장남이 되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변방(국경)의 군 주둔지에서 자랐기에 말러의 음악에는 고단한 삶을 사는 서민의 증류주 - 체리 증류주 키르쉬바서(Kirschwasser)나 서양배 증류주 비르넨바서(Birnenwasser) - 한 잔 축이며 벌이는 술판춤(‘랜들러’)나, 삶과 죽음을 오가는 군인들의 행렬, 당시 전염병이 조금만 돌아도 하루가 멀다하고 죽어 나가는 장례 행렬이 ‘세계 음악’으로 들어 있다.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시대 금수저 귀족들의 궁정이 주가 되는 유희의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다. 심지어는 귀족을 경멸하였던 베토벤에게조차 당시 황제의 동생이 친구였고 후원자였던 시절 나온 음악이었다. 그리고 흑수저였던 말러는 천재였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하고 또 일하였다. 말러가 제국의 변방에서 유대인으로서 온천휴양지의 싸구려 음악 지휘자로부터 시작하여 제국 변방의 헝가리-독일의 우수한 지휘자를 거치면서, 드디어 제국

의 수도 빈에 입성하여 빈 궁정 오페라와 빈 필의 음악감독이 되기까지, 정말 죽을 정도로 일하였다. 알마는 신혼여행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말러의 지휘가 예정된 사실도 뒤늦게 알았을 정도였다. 지휘자 말러가 가장 선호한 작품은 바그너의 ‘링 사이클’과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리고 모차르트의 ‘돈조바니’였다.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가장 유명한 동기가 ‘사랑의 죽음(Liebestod)’이지만,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 ‘응시’ 유도동기이다. 아다지에도 B 부분은 바로 이 ‘사랑의 응시’ 동기에 유래한다. 신분제가 엄격한 과거에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지만, 다행인지 현대사회에는 목숨을 걸만큼 사랑을 금지하는 제도도 없으니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이 평범한 현대인에게는 잘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말러 시대에도 이미 개인의 자유는 비교적 확대된 시대였으므로 말러 당시에도 평

범한 대중에게는 그저 구전의 신화에 나오는 사랑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말러는 대놓고 ‘아다지에도’의 B부분에서 죽음을 담보로 한 사랑의 주제를 차용하였다. 바로 아다지에도 전체의 클라이맥스가 B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응시’ 동기가 최고의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말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교향곡 5번에서 말러는 그 4악장에 앞서 1악장에 ‘장송행진곡’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1악장에서는 마치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 - ‘한 여름밤의 꿈’(Op.61)의 9번째 곡 - 처럼 솔로 트럼펫이 네 음씩 붙어대다가 하강하면서 장송곡의 제1주제가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같은 번호인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의 그 유명한 첫 네음을 상승패턴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 다를 이 단3도의 음정을 갖고 있다. 일중독자 말러는 어쩌면 베토벤보다 더 과감하게 운명을 헤쳐나가려고 하강패턴을 상승패턴으로 바꾸어 놓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곧 이 상승패턴이 좌절하면서 발전하여 장송곡의 제1주제로 바뀐다. 교향곡 5번은 말러가 애착을 가졌던 5악장 구조 - 이후의 7번, 9번, 10번이 모두 5악장 구조로 3악장을 중심으로 앞, 뒤 대칭적이다 - 에서 절망적인 1악장 2악장을 거쳐 현실적인 3악장에 이르렀다가 드디어 4악장에서부터 5악장까지 사랑을 노래한다. 3악장을 중심으로 볼 때, 4악장 ‘아다지에도’는 죽음 · 절망의 절정인 2악장에 대칭되는 악장으로 사랑을 노래한다. 아뭏든 말러의 아름다워서 황홀하기까지 한 4악장 ‘아다지에도’를 단독으로만 듣지 말고, 1악장, 2악장 순서대로, 그러나 만일 그럴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1악장 솔로 트럼펫의 팡파레(상승패턴)의 좌절을 듣고 나서 ‘아다지에도’를 들어보자, 마치 렘브란트의 18명의 ‘야경대원’ 얼굴에 비치는 빛이 그 배경의 어두움이 감싸기에 우리에게 빛의 황홀감을 선사하듯이, ‘아다지에도’도 어두움의 절망을 딛고 일어설 힘을 주는 아름다운 사랑이면서도 한낱의 빛과 달리 어둠 속의 빛은 본질적으로 어둠이라는 불안한 환경에 둘러싸인 것이라는 정직한 사실을 잊지 말자.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오래된 오아시스 - 예리코

심연선 소화데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어느새 2022년도 네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멈춰있었던 시계바늘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자기만의 역사를 기록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에서 손꼽히는 오래된 도시 예리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리코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7km, 갈릴래아 호수가 끝나는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요르단 강이 끝나며 사해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 강 서안지구 예리코 주의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들을 보면 이스라엘에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기도 하지만 비교적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습니다. 온건파라고 할까요? 그런 도시 중의 하나가 예리코입니다. 물론 양국 간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시위가 많이 일어나 관광 및 순례를 권고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다마스커스문 근처에서 예리코로 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관광택시가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려면, 현재 팔레스타인의 수도 역할을 하는 라말라로 갔다가 그곳에서 예리코로 가는 버스를 타는 방법, 또는 라자로의 고향인 al Ezariya까지 갔다가 예리코행 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예리코 내에서 다니는 것이 좀 불편하기에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리코는 현재까지 발굴된 결과로 인류 문명이 발생한 이래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제1차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가장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곳입니다. ‘구약성경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도시 예리코? 그곳이 정말 있다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마주한 예리코는 충격 자체였습니다. 지난날 다녀온 이집트의 시골마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리와 건물들, 도시 중심가 역시 많이 낙후된 여느 중동 마을

중의 하나였습니다. 굴러다니는 것이 신기한 자동차와 그 옆으로 유유자적 지나가는 소달구지, 남루한 반팔, 반바지, 샌들 차림으로 삼삼오오 돌아다니는 비교적 까만 피부의 어린이들.... 그렇게 차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에 눈을 떼지 못하고 이동하여 처음 도착한 곳은 자캐오가 올라갔다는 돌무화과나무였습니다. ‘이곳에 정말?’ 이라는 물음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뿐 아니라 누구나 비슷하게 겪게 되는 의심 같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이동한 곳은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예리코 성터였습니다. 이곳은 자캐오가 올라갔다는 나무 앞에서 생긴 의심병이 더 커지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흙무더기는 나중에 고고학적 설명과 자료를 통해 설득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현장에서는 밀려오는 실망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디선가 나타난 팔레스타인 청년이 따뜻한 민트차를 들이밀며 “안녕하





예리코



예리코 상점



예리코 성터

세요”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중동지역에서 유적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호객꾼입니다. 더불어 아까 시내에서 보았던 아이들 중 한명으로 보이는 녀석이 “원달러”를 연신 외치며 낡은 엽서꾸러미를 내밉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느낀, 15년전 제가 느낀 예리코의 첫인상인데요, 지금도 그다지 큰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최근엔 새 건물도 제법 생기고 그랬지만, 여전히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해 세련된 모습이 아닙니다. 텔아비브의 변화한 지역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100km가 안되는 거리를 두고 너무나도 큰 간극을 보이는 모습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약간 번민이 생기는 무렵 배가 살짝 고프는 거 같으니 식사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닐 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곳 예리코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로 유명한 시장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이 넘는 광야지역이 끝나는 부분에 물이 샘솟는 오아시스 마을! 그곳이 바로 예리코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엘리사의 샘 (Ein as-Sultan) 이라는 곳에서 사시사철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열왕기 하권에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나뭇 물이 나오는 (마시기에 좋지 않은) 샘에 소금을 넣어 생산력 있게 만든 기적을 일으킨 곳이라 하여 이름도 ‘엘

리사의 샘’이 되었다고 합니다. (2열왕 2,19-22) 사해 근방의 소금기를 머금은 땅에 좋은 물을 풍부하게 댈 수 있고, 비오는 날이 적어 일조량이 풍부한 예리코는 당도 높은 작물이 잘 자라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이 유명하고, 토마토, 오이 등 기후가 온화한 지역의 채소들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고물가로 고통받던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예리코 식당에서 가장 유명하고, 맛있는 것은 양고기입니다. 특히, 양갈비가 아주 좋습니다. 예리코를 빠져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

아 사방으로 펼쳐진 광야지역에서 기르는 양과 염소, 낙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팔레스타인 동네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양갈비는 예루살렘이나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맛볼 수 있지만, 예리코의 가장 큰 장점인 싼 물가 - 가성비가 좋은 곳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갈비는 어린 양의 갈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현지인의 말로는 6개월을 넘어서면 부드러움도 떨어지고 육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맛있고 즐겁게 식사를 마쳤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나니 왠지 새끼양을 잡아먹은 늑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게다가 이곳에 있는



유혹의 산



유혹의 산 수도원 내부



유혹의 산 수도원



자캐오의 돌무화과나무

프란치스코회 성당의 이름이 착한 목자 성당 (Good Shepherd's Church)입니다. 성당 입구와 제대 뒤편에 어린양을 안고 계신 예수님 성화가 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양갈비는 놓치기에 가까운 맛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저 한국에서 양고기 안 먹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라며 행복해하는 순례자들의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저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리코 지역의 대부분 식당이 양갈비를 잘 굽는데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는지는 팔레스타인 기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예리코 지역의 하이라이트인 유혹의 산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의 단식과 기도 후에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시는데, 그중에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마태 4,1-11) 에 등장하는 산이 이 예리코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의 이름도 유혹의 산 (Mount Temptation)입니다.

지금 이곳은 그리스 정교회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까지는 도보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케이블카를 타고 갑니다.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수도원은 그 존재 자체가 신비함을 안겨줍니다. 내부의 아름다운 정교회 이콘을 바라보며 수도원 안

쪽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첫 번째 유혹을 받을 때 앉았었다는 돌이 있습니다. 이곳 발코니 또는 창문을 통해 예리코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데, 광야 한 가운데 푸르게 자리하고 있는 예리코 도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충격을 받았던 개발도상국과 같은 모습과는 다른 묘한 아름다움을 안겨줍니다. 그 규모도 제법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꽤나 번성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떨어진 오아시스 마을인 예리코는 사방에서 오가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또는 돌아가는 길에 하루 머물고 쉬어가는 사람들로 늘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데레사, 조심해야 해, 이곳은 시간이 멈춘 곳이야.'였습니다. 변하는 것도 없고 변할 것도 없는 오래된 팔레스타인 도시에서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삶을 사는 한국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맛있는 물이 샘솟는 예리코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참 진리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봅니다. 🌿

정석의 이 도시(1) 우주피스 공화국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예술가들이 세운 독립국가

정석 예로니모_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018년 여름에 발트 3국 여행을 다녀왔다. 성당건축과 그림에 조예가 깊은 원주교구 유충희 대철베드로 신부님과 지인 20여 명이 함께 했던 12박 13일 여행이었는데, 백승치 요한 신부님도 함께 해주셔서 두 분과 함께 매일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던 복된 여행이었다.

스칸디나비아반도 아래쪽 긴 벨트처럼 생겨 ‘발트해’란 이름이 붙은 이곳, 바다에 면해 있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세 나라를 발트 3국이라고 부른다. 리투아니아가 290만, 라트비아가 190만, 에스토니아가 130만 명 인구를 가졌으니 세 나라를 합쳐도 600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들이다.

발트 3국으로 묶어 불리긴 해도 각각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리투아니아는 천주교 신자가 80%인 천주교 국가이지만, 라트비아는 개신교 35%, 천주교 25%, 그리스정교 20%이고, 에스토니아는 정교 15%, 개신교 10%, 무교가 55%라고 하니 종교도 제각각이다.

세 나라의 공통점도 있다. 러시아, 독일, 폴란드 등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고생한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세계 1, 2차 대전 전후에는 독일의 지배를, 2차대전 이후에는 구 소비에트연방(소련)에 병합되었다.

소련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세 나라가 함께 한 놀라운 독립운동이 있다. 1989년 8월 23일 저녁 7시,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라트비아 수도 리가를 지나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까지 이르는 620킬로미터 긴 구간에 세 나라 국민 약 200만 명의 길고 긴 인간띠가 이어졌다. 손에 손을 잡은 세 나라 시민들은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갈망하는 노래를 불렀다. “일어나라 발트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일어나라 발트야!”

인간띠 독립운동이 있던 지 석 달 뒤인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2년 뒤 1991년 9월 6일에 세 나라는 소비에트연방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독립하는 기쁨을 누렸다. 세 나라 국민의 3분의 1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던 발트 인간띠 독립운동의 현장을 가까이 와서 보니, 그날 그들의



검은 마리아상이 있는 새벽의 문

외침소리를 듣고 눈물과 환희를 보게 된다. 한반도에서 있었던 1918년 3월의 우렁찬 만세 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도 떠올랐다. 세상은 서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도착한 첫날, 성당 탐방을 했다. 성베드로바로 성당은 수수한 겉모습과 달리 속은 장식의 끝판왕이다. 누가 누가 더 꼼꼼하게 장식할 수 있는지 겨루기라도 하듯 세밀한 장식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마침 성당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어 부부의 길을 내딛는 두 사람을 위해 기도드렸다.

요가일라 왕의 둘째 아들 카지미에라스는 선행을 많이 베풀어 성인품에 올랐는데, 그를 기려 지은 카지미에라스 성당 지붕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다. 17세기에 지어진 왕관을 쓴 이 성당의 역사는 기구하다. 19세기 러시아 지배하에서는 정교회 성당이 되었고, 그 뒤 정치범 수용소와 포도주 창고로 쓰인 적도 있다. 소련 지배를 받을 땐 무신론박물관이 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성당으로 제모습을 되찾았다. 빌뉴스 대성당은 당시 리모델링 중이었는데 지붕 위의 헬레나, 스타니슬라오, 가시미로 성인 성녀의상이 인상적이었다. 레고블록 천재가 지은 것 같은 붉은 벽돌의 안나 성당은 너무도 예뻐 나폴레옹이 뚝 떼어 가져가고 싶었다는데 그럴 만도 해 보였다. 그 옆 베르나르도 성당에선 첫 미사도 드렸다. 빌뉴스에는 성당도 많고 하나 하나 다 귀한 보물들이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톨릭이 가장 늦게 전해진 나라인데, 리투아니아의 가톨릭 신심은 가장 뜨거운 것 같다.

빌뉴스의 구도심 지역은 1993년에 ‘빌뉴스 역사 도심(Vilnius Historic Center)’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검은 마리아상이 있는 새벽의 문에서부터 옛 시청사를 지나 빌뉴스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건물과 거리와 장소들이 고즈넉하니 참하고 아름다웠다.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또 하나의 나라, ‘우주피스 공화국’이 있다.

지구촌을 넘어 우주의 평화를 기원한다는 뜻의 우리말이 아니다. 리투아니아 말 ‘우주(Uzu)’는 물이고, ‘피스(pis)’는 건너편이니 우주피스 공화국은 ‘강 건너에 세운 나라’란 뜻이다. 빌뉴스 도시 바깥쪽 빌네레강 너머 후미진 마을 이곳 우주피스에는 1천여 명 가까운 예술가들이 모여 살았는데, 1997년 4월 1일 독립 공화국 선포를 했다고 한다. 독립 공화국이니 당연히 대통령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군대도 무려 열한 명이나 보유하고 있단다.

빌네레강을 건너는 다리가 공화국의 경계다. 다리를 건너 공화국 광장에 이르면 2002년에 세운 천사상이 반갑게 맞는다. 공화국 독립기념일 축제가 열리는 매년 4월 1일에는 천사상 앞 수도꼭지에서 물 대신 맥주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얼마나 오랜 세월



우주피스공화국 광장의 천사상과 수도꼭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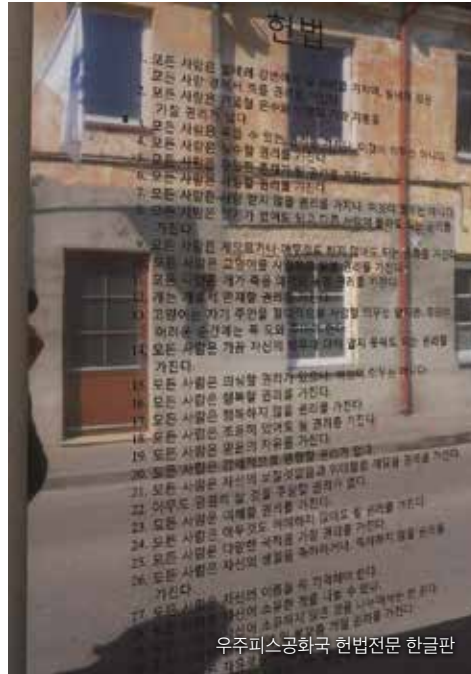
을 말도 안 되는 권력에 복종하면서 살아왔을까? 그 모순과 부조리를 아마도 예술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독립공화국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들이 지향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세계 각국 언어로 번안된 우주피스 공화국 헌법 조문을 새긴 판들이 골목길에 줄지어 세워져 있다. 한글판은 2019년에 세워졌다. 전문 41조로 된 헌법 조문들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다.

제1조 “모든 사람은 빌네레 강변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빌네레 강은 모든 사람 곁에서 흐를 권리를 가진다”는 사람들의 살 권리와 강의 흐를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으

로 읽힌다. 제2조 “모든 사람은 겨울철 온수와 난방과 기와지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인 ‘주거권’의 보장을 강조한다. 이 밖에도 사랑할 권리, 게으름을 권리, 동물의 권리, 생일 축하받지 않을 권리까지 엉뚱한 듯 보이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사람과 생명과 자연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보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리투아니아가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생각을 했다. 저녁을 먹고 호텔 가까이 위치한 네리스 강변을 돌아보면서 더욱 그랬다. 하루 일을 마치고 강변 잔디밭에 앉거나 누워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강가에 만든 농구장, 익스트림 경기장, 비치 배구장에서 젊은 청춘들이 가슴 속 불덩이를 꺼내 식히고 있었고, 집라인을 타고 강을 건너는 이벤트 행사도 즐거운 풍경



우주피스공화국 헌법전문 한글판



네리스 강변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는 빌뉴스 청소년들

이었다. 열기구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가자마자 마치 연출을 한 것처럼 수많은 작은 새들이 무리 지어 강 위로 날아갔다.

가장 오래 내 눈길을 붙든 건 자전거와 보드로 묘기 연습을 하는 청소년들이었다. 땀 흘리며 연습하다 넘어지면 피멍이 들 텐데도 깔깔거리며 젊음을 발산하는 이네들 모습 위로 우리나라 청소년들 모습이 겹쳐졌다.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기는커녕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입시공부, 사교육, 선행 학습에 붙들려 사는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과 리투아니아 둘 중 어디가 선진국일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인데 왜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일까? 여행은 이렇게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다. 🍷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배우(俳優)’에 대하여 말해보기

이형중 프란치스코_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교수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업계의 장기간 침체국면에도 조금씩 서광이 비치고 있다. 오랜만에 천만관객 한국영화가 등장했고, 이에 뒤질세라 추이를 엿보던 블록버스터급 할리우드 영화들도 줄줄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는 역시 팝콘과 음료를 곁들여가면서 주변의 다른 관객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몰입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다. OTT 플랫폼의 도약적인 발전과 범지구적인 TV 드라마(K-드라마 포함)의 전파로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모호해진 요즘이지만 직접 발품을 팔아 영화관에 가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면서 지정된 좌석에서 행하는 은밀한 흠쳐보기의 묘미란 나홀로 시청하는 TV 드라마와는 분명 다르다.

이 시점에서 ‘좋은 영화’가 갖춰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좋은 감독’은 당연히 필요충분조건이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는 덧칠해지는 헤모글로빈의 농도에 따라 PG-13 혹은 R등급을 받을 뿐, 출연진과 줄거

리는 대개 관심 밖이다. ‘그’라면 당연히 이 정도 수위의 영화는 만들 것이라고 짐작하는 소위 덕후질에 배신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감독이 장르가 되어 버린 알프레드 히치콕의 서스펜스, 스탠리 큐브릭의 숨 막힐듯한 완벽함, 데이빗 린치의 황당한 컬티즘, 크리스토퍼 놀란의 지적 오만함 등도 비슷한 예이다.

좋은 시나리오’를 말할 때는 작가주의(auteurism) 개념과도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원고를 쓰는 감독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야 할 것 같아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하나의 미국 드라마 에피소드를 만드는 데에만 수십명의 스크립터가 동원된다고 하니, 여러 개의 시즌으로 전개되는 드라마보다는 제한된 시간 내에 함축적이면서도 풍부한 표현을 해야 하는 영화를 제7의 예술로 인정하는 이유 중에 시나리오의 힘은 빼놓을 수 없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가 있겠지만 화면을 채우면서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배우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

건이다. 우리말 ‘배우(俳優)’에서 俳는 광대나 희극 배우를, 優는 비극 배우를 뜻한다고 한다. 俳가 사람(人)이 아닌(非) 어떤 존재로 규정어진다는 의미는 묘하게 다가온다. 20세기 초의 모더니즘을 부정하고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전의 문화 사조를 이어간다는 의미보다는, 부정하고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post-란 접두사를 붙인 것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배우란 일반 사람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 존재로 해석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배우’란 살아보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스스로 해석하여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대신 살아야만 한다는 어찌 보면 운명론적인 직업이다.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대상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배우는 두려움과 부담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천부적 직업이기도 하다. 배우는 연기라는 자연스러운 물질을 따르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배우기 때문에 배우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최근의 CF가 공감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생은 느끼는 사람에게는 비극(悲劇)이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극(喜劇)이라는 말이 있다. 둘의 차이를 쉽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보통은 작품에서 주인공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처리방식에 따라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비극, 해결되면 희극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배우는 단순히 화면을 채우는 미장센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해석을 관객의 몫으로 남기는 잘 꾸며진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우 김상중처럼 말이다.

이렇듯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는 배우 혹은 영화인이란 직업을 거꾸로, 영화나 드라마 몇 편을 보고 일반인이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스카를 수상했던 영화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 배우 윤여정 선생님을 필두로 전세계적으로 망위를 떨치는 BTS, 안타까운 사망으로 칸영화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故 강수연 배우, 그리고 당연한 수순처럼 칸영화제를 석권한 박찬욱 감독, 송강호 배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올해 펼쳐질 월드컵 경기에서 태극전사 운운하는 전체주의적이자 소비니즘적인 국뽕 방송이 재현될까 두려운 것은 나만의 걱정일까? 아무런 간섭없이 사심 가득한 내 방식대로 특별한 배우 몇 명을 꼽아보았다.

<부당거래, 2010>에서 검사에게 접대와 뇌물을 받으며 입맛에 맞게 기사를 조리해주는 사이비 기자가 있었다. 얼굴 반쪽에 커다란 반점을 가진 채 나지막한 소리로 억울한 피의자를 돕던 존재감 없던 국선변호사가 나왔는데,



스토브리그



극한직업, 2019



조작된 도시, 2017



부당거래, 2010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



브로커, 2022



브로커, 2022

나중에 알고 보니 고위층 자체가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엄청난 슈퍼컴퓨터로 해킹과 증거 조작을 일삼았던 악당 민천상(<조작된 도시, 2017>), 천만영화 <극한직업, 2019>에서 최종 빌런 이무배의 라이벌이자 찰진 욕을 하던 테드 창과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배트맨의 조커처럼 보라색 정장을 고집했던 콤플렉스 덩어리인 프로야구단의 바지사장으로 나와 결국 흡수자의 자력갱생을 보여주었던 배우 오정세가 있다. 그는 배우를 주, 조연으로 구분하는데 반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작품 자체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엄청난 스펙트럼을 가진 연기자로 알려져 있다. 출연작마다 캐릭터가 겹치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하며 시나리오 리딩 때 몇 개의 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이 배우의 한계는

어디쯤일지, 진짜 얼굴은 뭐일지’ 궁금해진다. 속박을 벗어난 연기는 이 남자에서 정점을 이룬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 2020>에서 유일하게 건질 거라고는 극중 631부대를 이끌던 서대위 역의 구교환이었다는 평이 있을 정도이다. 마치 문어처럼 흐물거리는 캐릭터로 겉과 속이 다르고,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던 낯선 연기는 <모가디슈, 2021>에서 단단해 보이지만 허술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질적인 북한대사관 보위부 요원으로 재탄생하였다. 넷플릭스의 <D.P.>에서는 무겁고 어두운 극중 분위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엄청난 말빨로 위기를 모면하며, 촌지까지 받아 챙기지만 스스로의 본분은 지키는 이상적인 군인으로 변신한다. 묘

한 목소리와 낯선 얼굴 표정에서 그동안 보고 들었던 여느 배우와는 다른 톤 앤드 매너에 기대감이 커져간다.

이번 칸영화제에 초대되었던 배우 아이유는 어린 나이에 가수로 데뷔하였으나, 드라마로 본명인 이지은을 알렸다. <나의 아저씨>에서 꿈, 계획, 희망이라는 단어는 포기한지 오래된 21살의 소녀 이지안은 사채빚을 갚기 위해 회사내 반대파의 사주로 24살 위 아저씨의 도청을 하게 되지만, 그의 내면을 온전히 보게 되면서 오히려 연민을 느끼고 공감을 통해 서로의 상처가 치유됨을 느낀다. 그녀의 과거 인터뷰를 돌아볼 때 알맹이가 짙고 단단한, 소신있는 아티스트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하지 않고 정면도전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헤쳐 나가던 그녀의 곳곳함은 <호텔 델루나>에서 보여주었던 장만월 사장 캐릭터와도 통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을 관통하는 가족이란 주제는 <브로커, 2022>에서 제도권을 벗어난 모성의 방황과 인신매매를 위한 여정, 인위적인

가족구성이란 설정 하에 모성이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만든다. 의외의 보석을 찾은 기분으로 영화를 감상한 후의 느낌은 이렇다. 이전 노래를 재해석하여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고 스스로도 곡을 쓰는 가수로서의 자생력은 배우 이지은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믿는다.

배우 윤여정 선생님의 40년 어록에 이런 말이 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거였어요. 요즘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어. 배우는 목숨 걸고 안하면 안 돼. 훌륭한 남편 두고 천천히 놀면서, 그래 이 역할은 내가 해 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가 편하면 보는 사람은 기분 나쁜 연기가 된다고, 한 신 한 신 떨림이 없는 연기는 죽어 있는 거라고.” 어쨌든, 이 정도면 직업과 나이를 떠나 충분히 존경하고 경청할만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D.P.



모가디슈, 2021



모가디슈, 2021



반도, 2020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대천사 성 가브리엘, 성 미카엘, 성 라파엘

윤인복 소화데레사_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성경에서 천사의 수는 “무수한 천사들”(히브 12,22), “수백만 수억만”(묵시 5,11) 등 무한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천사들 사이에도 구분이 있어, 종류가 있고 등급이 있다. 천사론을 주창한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티타(Dionysius Areopagita)는 천사들의 세계에 대해 처음으로 신학적 틀을 제공했는데, 그는 천사를 순수한 정신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각 천사계급을 임무에 따라 특징지었다. 그 가운데 가브리엘(Gabriel), 미카엘(Michael), 라파엘(Raphael)은 인간에게 직접 관여하는 천사의 무리에 속한다. 하늘의 존재로서 대천사만이 이름을 가지며, 이들은 각각 이름과 역할을 통해 자신을 규명한다.

하느님의 전령 성 가브리엘 대천사

성 가브리엘 대천사는 다니엘에게 나타나 그가 본 환시와 예언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고(다니 8,16-26), 즈카르야에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렸다(루카 1,11-21). 특히 마리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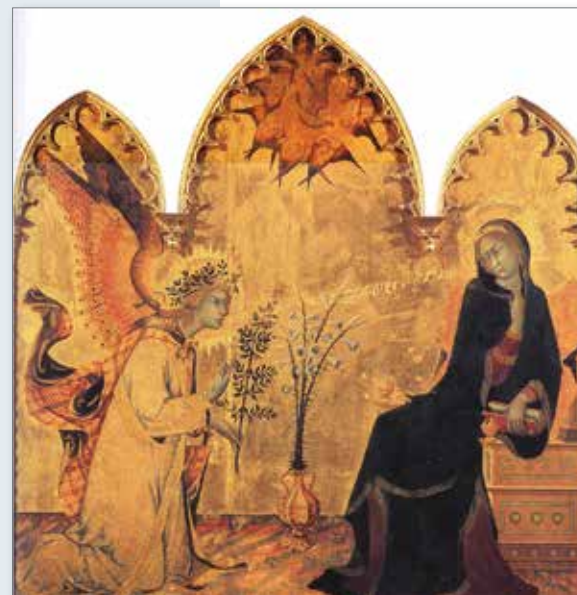
게 나타나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알린 하느님의 사자이다(루카 1,26-38).

가브리엘 대천사에 관한 그림은 단연 가브리엘이 주님의 대변자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를 마리아에게 예고(수태고지)하는 장면이다. ‘수태고지’ 도상은 기본적으로 대천사,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비둘기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가브리엘은 손에 지팡이와 홀, 그리고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을 자주 들고 있다. 세송이의 백합은 마리아가 출산 이전에도 동정이었고, 출산 중과 출산 후에도 동정이셨다(ante partum, in partu, post partum)는 것으로 마리아의 끝까지 티 없으신 동정녀를 의미한다.

시에나에서 활동한 시모네 마르티니(Simone Martini, 1283년경~1344년경)의 <수태고지>에는 올리브 가지를 든 대천사가 등장한다. 올리브 가지의 표현은 당시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시에나 지역 간의 적대 관



페루지노, <성모자와 대천사들>(일부), 1496-1500년경, 내셔널 갤러리



시모네 마르티니, <수태고지>, 1333년, 목판에 템페라, 우피치 미술관, 피렌체

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백합이 피렌체를 상징하는 꽃이었기 때문이다. 올리브 가지는 하느님이 인간과 새롭게 맺은 평화의 표징이기도 하다. 대천사가 든 올리브 가지는 말씀의 육화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일체적 평화를 상징한다.

영혼의 무게를 다는 성 미카엘 대천사

성경에서 악을 물리치는 역할을 담당한 대천사는 미카엘이다. 구약성경에서 미카엘 대천사는 이방의 적들과 직접 싸우며, 요한묵시록에서는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용과 싸운다. 일품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을 페르시아 임금들 곁에 남겨 두고 페르시아 호국 신과 겨루며(다니엘 10,13),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왔을 때 책에 쓰인 악마와 다투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다니엘 12,1), 대천사로서 모세의 주검을 놓고 악마와 다투며(유다 1,9),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인 용과 그의 부하들이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도록 무찌른다(묵시 12,7-8). 미카엘 대천사의 도상은 일반적으로 요한묵시록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왔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미카엘의 모습은 창과 검, 방패로 무장한 전사(戰士)의 역할이 강

조되어 있다. 대부분 대천사는 악에 대한 승리로 긴 창을 용의 입에 겨누거나 용의 머리를 밟고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전사로서 미카엘은 특히 인간의 영혼 구원과 관련된 주제로 자주 등장한다. 중세 말의 경우에는 개인 구원의 관심과 국가나 왕, 일족이나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대체하여 미카엘은 무장한 용사가 아닌 사제의 복장으로 죽은 영혼을 이끄는 역할자로도 표현된다.

플랑드르 화가 로지에 반 데르 바이덴(Rogier van der Weyden, 1399년경~1464년)의 <최후의 심판> 역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천상에는 심판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모마리아와 세례자 요한, 사도들이 자리하고 있다. 네 명의 천사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징하는 표징(돌기둥, 십자가, 가시관, 창과 해면)들을 들고 떠 있다. 그리고 다른 네 명의 천사는 미카엘 대천사를 둘러싸고 세상 종말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있다.

지상의 대천사 미카엘은 죽음에서 깨어난 자들의 영혼을 달고 있다. 대천사는 칼 대신 공정의 도구인 저울을 들어 최후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의 영혼을 나누고 있다. 최후의 심판을 다루는 로지에의 그림에서 권좌에 앉은 재림의 그리스도가 강조되었다기보다 미카엘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살아지은



로지에 반 데르 바이덴, <최후의 심판> (일부), 1445-50, 패널에 유채, 오텔 디외 미술관, 본, 프랑스

죄와 선행을 재는 미카엘에게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으며 복장도 사제의 복장으로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담당하는 자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미카엘 대천사가 들고 있는 저울에는 죽은 자의 상징인 벌거벗은 육체가 양쪽에 달려있다. 저울 왼쪽 접시에 앉은 사람(의인)은 가벼운 영혼으로 정화되어 하늘로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오른쪽 접시에 앉은 사람(악인)은 죄를 지은 영혼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요한묵시록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대천사는 양쪽 저울에 죽은 자들 각각의 죄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다.

미카엘 대천사는 빛과 어둠, 선과 악, 구원과 타락 등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믿는 사람의 영혼을 보호하고 임종 때 피난처가 되어 주어 임종자와 경찰의 수호자이기도 하다.

치유의 대천사 성 라파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미카엘 대천사에 이은 세 번째 대천사 라파엘은 『토빗기』에 등장하는 천사이다. 히브리말로 라파엘의 이름은 ‘하느님이 치유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라파엘은 치유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다.

토빗기에 따르면, 의로운 토빗이 그의 아들 토비야와 니네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전 재산을 잃고 말년에는 시력도 잃었지만, 하느님께는 충실했다. 토빗은 어린 아들 토비야를 위해 오래전에 친구에게 맡겨두었던 돈을 찾으려고 아들을 그에게 보낸다. 토빗은 주님께 아들의 긴 여행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눈먼 아버지를 대신하여 먼 길을 여행하는 토비야에게 라파엘 대천사를 보냈다. 토비야는 대천사와 함께 믿음직한 개를 데리고 여행길을 나섰다. 라파엘은 토비야와 동행하며 안전한 길의 안내와 여러 위험에서 그를 지켜주었다.

많은 화가는 라파엘 대천사를 토비야 이야기 속에서 영감을 받아 그렸다. 주요 주제는 라파엘과 함께 개를 데리고 여행하는 토비야가 물고기의 내장을 담은 병을 들고 걷는 장면이나 눈먼 토빗을 치료하는 장면이다. 티그리스 강가에 다다른 토비야가 거대한 물고기의 공격을 받아 라파엘은 토비야를 도와 그 물고기를 잡았다. 토비야에게 물고기

의 염통, 간, 쓸개를 보관해 두라고 이르며, 물고기의 염통과 간은 악마를 쫓아내게 될 것이고 쓸개는 눈먼 사람을 치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파엘은 토비야에게 라구엘의 딸 사라와 결혼하도록 도왔다. 마귀 때문에 사라의 일곱 남편은 모두 첫날밤에 죽었으니 라파엘이 토비야에게 물고기의 염통과 간을 태워 그 냄새로 인해 악마로부터 사라를 구해낼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사라와 함께 귀향한 토비야가 물고기의 쓸개즙을 아버지의 눈에 발라 치료하자 토빗이 눈을 떴다. 이런 까닭에 오래전에는 아들이 여행하게 되면 여행길의 안전을 위해 천사와 토비야가 등장하는 모습의 그림을 주문하기도 하고,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시력을 되찾고 싶은 희망에서 토비야가 그려진 그림을 주문하기도 했다.

치마 다 코르넬리아노(Cima da Conegliano, 1459년경- 1517년경)는 전통적으로 함께 길을 동행하는 소재로 삼던 라파엘 대천사와 토비야와는 달리 낮은 돌무덤 위에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들 발 아래에는 여행을 함께 간 강아지 한 마리도 보인다. 라파엘은 손을 들어 무엇인가 토비야에게 설명하고, 토비야는 한 손은 물고기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은 라파엘의 소매를 잡은 채 자신의 수호천사를 바라보고 있다. 이



치마 다 코르넬리아노, <라파엘 대천사와 토비야>, 1500년경, 아카데미아 미술관, 베네치아

들 좌우에는 순례자의 수호성인인 성 야고보와 아이들의 수호성인인 성 니콜라우스가 둘러서 있다. 이들 역시 라파엘 대천사의 수호자 역할과 부합된다.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시편 91,11). 미술에서 수호천사는 주로 성인이나 순교자의 곁에서 위험이나 유혹, 곤경을 막거나 경고해주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❷

2022 한국CLC 하반기 교육일정

CLC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따르는 국제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한국CLC는 평신도의 영적새신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목요신학강좌,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 평신도를 위한 침묵피정,
본당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문의 : 한국CLC홈페이지(www.kclc.or.kr) 혹은 CLC 사무국 02-333-9898



	과 정 명	기 간	장 소
9월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 33기	9/7~10/12(수)	한국CLC 강의실 (당산동)
	이나시오 회심 500주년 기념 강좌	9/22~9/29	CLC in Korea 유튜브 채널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대전)	9/16~10/21(금)	대전 원신흥동 성당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수원)	9/27~11/1(화)	수원교구 교구청
10월	목요 신학 강좌 II	10/20~11/24(목)	한국CLC 강의실 (당산동)
11월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시흥)	11/4~11/6 (2박3일)	성 바오로 피정의 집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 수원 8기	11/8 ~ 12/13(화)	수원교구 교구청
상시	대림 특강, 건전 특강, 기타특강	의뢰 기관(본당, 수도회, 단체 등)과 사전조율	

* CLC의 계획 중인 강좌 대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추석!

우리농 추석선물로 우리농운동에 동참하세요!
유기순환방식 생명농업으로 키워낸 다양한 생명농산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추석선물 목록과
주문은 **우리농 장보기 앱**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우리농 장보기 앱
(안드로이드)

우리농 장보기

AΩ

Alpha and Omega

1 : the beginning and ending 2 : the principal element

alpha \ 'al-fə \

1 : the 1st letter of the Greek alphabet 2 : something that is first 3 : the first version of a product (such as a computer program) that is being developed and tested

ome·ga \ ō-'mā-gə \

1 : the 24th and last letter of the Greek alphabet 2 : the extreme or final part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